

사설

폭력 예방교육 성실히 임해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가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예방교육 부진기관에 선정된 대학은 우리학교 국제캠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고, 전체 1만 7,693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16개 기관에 불과하다.

국제캠이 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이 된 이유에는 고위직 예방교육의 저조한 참여율에 있다. 여기서 고위직은 부총장과 전임교원, 실·처장급 교직원들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가르침을 전수하는 주체다. 부총장, 실·처장 등도 가진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큰 만큼 그들이 지닌 생각과 실행하는 언행이 다른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직 구성원들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강조되는 이유다.

국제캠이 2년 이상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선정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는 국제캠이 처음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지정되고 나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이 의지를 보였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달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종합대학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폭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 대학에서 교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304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82건에 달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성폭력 등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직접 폭력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그릇된 인식에서 기반한 발언 역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런 만큼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 당국의 노력은 아낌이 없어야 한다.

이번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에서 부진기관 지정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았지만, 학생과 종사자들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각각 4%, 29%를 기록했다. 국제캠이 지적받은 고위직 구성원들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정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에 설치를 권고

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인권센터도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이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위직 구성원 및 학생들의 예방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총학생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상담실은 이어 “2021년부터는 비대면 교육만으로도 예방교육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상담실의 의지대로 우리학교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세시봉

기회 사재기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국회의원의 아들 A 씨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회사의 대리금으로 6년째 일하던 그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연봉의 20배를 뛰어넘는 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회사가 시키는 일을 충실히 수행한 ‘오징어 게임 속 말(참여자)’로 빗대어 표현하며, 퇴직금을 건강 악화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라 설명했다. 뒤이어 A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전 특별검사의 딸 B 씨 역시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특정 인물에게 과한 불로소득과 보상이 이뤄지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다. 현실감 없는 높은 장벽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우리는 취업을 위해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다. 자격증부터 스펙이 될 만한 대외활동까지. 계속되는 좌절을 겪고, 경쟁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 성과와 관련 없는 요인이 지배하는 사회를 마주한 청년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 50억을 받지만 우리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리처드 리브스는 『20 vs 80의 사회』에서 ‘기회 사재기’를 재정의한다. 기회 사재기는 희소한 기회가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희소한 기회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성과와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권력층 자제들이 희소한 기회를 모조리 사들이는 모습을 기회 사재기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청년’들은 남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오징어 게임의 참여자는 A 씨가 아니다. 남은 청년들의 역할이다.

지난해 혼인율은 전년 대비 2만 5,657명 감소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연애, 혼인, 결혼 나이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n포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울어진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연대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출발선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울어진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각자도생을 바라는 것은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정한 사회, 그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총여학생회 해산

청사진 없는 착공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달 5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총여학생회(총여) 대안 기구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당장 총여 해산을 결정하기 전에 대안 기구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총여 해산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대학가에 총여 폐지 여론이 부상한 뒤로 반복돼 오던 익숙한 문법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폐지에 다다르되 그 공백에 대한 대안 논의는 ‘절차에 맞지 않게’ 생략되어 왔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그랬다. 총여 폐지 총투표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당시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대안 기구로 총학생회 산하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내세우며 “성평등위를 총학 산

하 기관으로 두면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기구는 2019년은 물론, 지금까지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총여 임원의 참여를 명시해 왔는데, 이마저도 지난 27일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담당자가 공식 상태로, 총여 폐지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캠 중운위의 의지는 국제캠 총학의 포부와 다를 수 있을까. 실제로 서울캠은 ‘총여 존폐 및 재편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안기구 신설과 그 형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국제캠에서 간담회도 없이 총투표를 치른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총여 해산이 결정된 지금, 서울캠 중운위는 약속했던 바와 같이 “총여학생회 해산 문제보다도 더 깊고 긴 논의”를 펼치기를 바란다.



만평 모양만 맞추면 해결될까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